

【논 문】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한 성 주*

차례

1. 머리말
2. 童淸禮의 1차 建州三衛 파견
3. 童淸禮의 2차 建州三衛 파견
4. 맺음말

국문초록

燕山君대 이루어진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은 압록강유역의 溡原¹ 침입을 받은 것을 계기로 포로된 사람들을 쇄환시키고, 교섭을 통해 여진인들의 침입을 금지시키며, 향후 정벌을 대비하여 建州三衛지역에 대한 도로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동청례의 1차 파견은 1498년(연산군 2)에 실시되었는데, 약 12~1월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동청례는 ‘三衛敬差官’이란 이름으로 건주위 본위를 직접 방문하여 주장 達罕과 좌·우위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위원 침입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쇄환하고, 침입을 금지하라는 조선의 教諭² 반포하였다. 그러나 건주위만을 방문하였을 뿐 좌위와 우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잡아간 사람들의 쇄환을 약속받았지만 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다만 조선에 대한 침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눈이 많이 쌓이는 관계로 급히 돌아오면서, 다음해 봄에 滿浦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만포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건주삼위의 주장들은 書契를 보내 동청례의 파견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동청례의 건주삼위 재파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결국 동청례의 2차 파견이 결정되어 1497년 연산군 39에 ‘三衛宣諭官’이란 이름으로 약 20여 일 정도 건주삼위를 방문하였다. 2차 파견시에는 동청례를 영접하러 온 여진인들을 따라 1차 파견 회정 때 약속받았던 평탄한 지름길을 통해 건주위(본위)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여진인들이 설치한 방어시설을 볼 수 있었고, 위원에 침입한 金山赤의 위협과 방해도 있었다. 그러나 건주위(본위) 達罕과 좌위 土老, 우위 甫化土(甫花土, 南華土)등 건주삼위 추장들을 직접 대면하고, 각각에게 조선의 서계를 반포할 수 있었다. 삼위 추장들은 宣諭 및 물품을 받고 잔치를 벌여 동청례를 환영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약속하였고, 특히 달한은 동청례가 회정할 때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하였다. 소정의 목적을 이룬 동청례는 포로가 되었던 조선인 3명을 돌려받고, 2백여 명의 여진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돌아왔다.

세조대 건주삼위에 대한 초무와 이에 대한 明의 간섭으로, 이후 양자 간의 관계가 중단된 것처럼 여겨왔지만, 세조대 이후에도 조선과 건주위와의 교섭은 계속 지속되었다. 성종대 平安道の 교통로를 개방하여 건주삼위의 통교를 받아들인 사실이나, 연산군대 동청례를 건주삼위에 파견한 사실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연산군대 동청례의 파견은 조선의 여진에 대한 羈縻政策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미정책은 여진이후 僉으로 통합되는 과정까지 지속되었다.

주제어 : 연산군(燕山君), 동청례(童淸禮), 건주삼위(建州三衛), 파견

1. 머리말

조선전기 女眞關係는 ‘交隣’이라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強穩兩面の 羈縻政策이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여진에 대한 기미정책은 遼東의 여진인들이 조선에 來朝하거나 向化하면 평화적으로 대우하고, 조선에 침입하면 격퇴하거나 征伐을 단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진에 대한 강은양면의 기미정책은 기본으로 하되, 여진의 분포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크게는 지역적으로, 豆滿江流域과 鴨綠江流域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明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명과 가까운 압록강유역은 명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국경완충지대를 두었고,¹⁾ 이 지역 여진에 대한 明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여진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招撫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만강유역은 永樂帝 때 발생한 10處 여진인의 귀속문제를 시작으로 尹瓘의 公險鎭 설치와 상고되어 두만강外까지 조선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만강유역 내외의 여진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의 결과, 6鎭 설치 이후에는 이들을 조선의 울타리인 ‘藩籬’로 만들어갔다.²⁾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유역에는 번리가 형성된 반면 압록강유역에는 조선의 번리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 변화, 명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는 조선의 이러한 기초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조선 세조대를 전후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북방 오이라트의 침입이 격화된 시기였다. 명의 황제가 사료잡혀가는 소위 ‘土木의 變’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이 없던 조선의 세조가 이러한 정세변화를 이용하여 압록강유역의 建州三衛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 건주삼위는 세조가 이례적으로 平安道の 길을 개방하자 조선에 내조하여 조선의 관직을 받았는데, 조선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명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명의 간섭을 받았으며, 결국 세조는 건주삼위와의 교류를 일시 중단하였다.⁴⁾

그동안 조선 세조대 건주삼위와의 교섭 중단으로 인해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교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것은 어쩌면 고정화된 事大라는 인식의 틀 속에서 조선·명·여

1) 유재춘, 2011, 「중·근세 朝·中間 국경완충지대 형성과 경계인식 - 14~15세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2)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3)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4) 한성주, 2007,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보』 40.

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세조대 명의 간섭에 따라 조선이 건주삼위와의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건주삼위와의 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조선은 압록강유역의 건주삼위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았고, 세조대 이후에도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최근 조선 성종대 및 연산군대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⁶⁾ 여기서는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산군대 두 차례에 걸쳐 건주위에 파견된 童淸禮의 활동과 관련하여 『燕山君日記』를 중심으로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2. 童淸禮의 1차 建州三衛 파견

15세기 중반, 요동의 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명의 북부, 몽골에서 시작된 오이라트의 성장은 요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명의 위소체제를 따랐던 여진인들은 북방 정세 변화에 편승하여 명을 침입하였고, 많은 인민과 물품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여진인들이 점차 본격적인 농경화 단계로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는데,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여진인들의 입장에서는 발달된 농경 기술을 습득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결국 명이 요동 여진지역에 설치한 여진위소는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명에서는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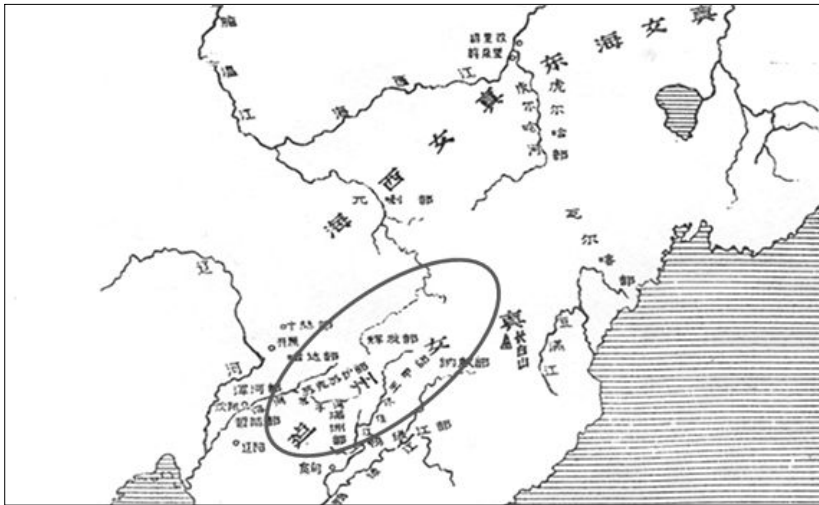
5) 이와 같은 시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에서도 비슷하다. 대부분은 조선과 건주위와의 관계를 조선 세조대와 선조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6) 김순남, 2009, 「조선 成宗代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김순남, 2009,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7) 연산군대 동청례의 파견에 대해서는 河内良弘, 1976,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1;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657~666쪽; 姜龙范·刘子敏, 1999, 『明代中朝关系史』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351~361쪽에 대략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변장을 설치하는 한편 여진 지역에 대한 정벌을 실시하였다.⁸⁾

여진의 침입은 조선 방면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여진인들의 침입은 두만강유역보다는 압록강유역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두만강유역은 5진 설치 후 알타리·올랑합·올적합이 5진 성저 또는 두만강 남·북안에 거주하면서 조선의 번리가 되어 먼 지역의 여진인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록강유역은 이러한 번리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城堡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장성(塹城)을 쌓아 방비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벌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림 1〉 明末女真分布圖⁹⁾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압록강 북안에는 주로 건주삼위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평안도의 여진의 침입은 건주삼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8)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참고.

9) 孙进己 外 3人, 1987, 『女真史』 吉林文史出版社, 303쪽 '明末女真分布圖'를 재작성함, 원(○)을 중심으로 건주여진이 분포하였다.

성종대 중반, 건주삼위의 통교에 대해 세조대와 같이 평안도의 상경로를 개방하여 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주삼위를 비롯한 여진인들의 평안도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연산군이 즉위한 초기에도 크고 작은 여진인들의 침입은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496년(연산군 2) 7월 渭原 침입은 조선에 큰 피해를 끼쳤다. 당시 위원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80여 명의 조선인이 사로잡혀갔던 것으로 보이며, 건주위의 침입으로 살해되거나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연산군이 매우 분개할 정도였다.¹⁰⁾

위원 침입 이후에도 여진인들의 계속된 침입 정황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고, 명의 요동지휘사사에서도 咨文을 보내어 여진의 침입 정황을 알려주고 있었다.¹¹⁾ 실제로 며칠 뒤 평안도의 碧潼이 여진인들의 침입을 받아 변경의 수비를 담당하던 조선의 甲士가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¹²⁾ 이에 변방 백성이 편히 살 수 없어서 혹은 성안으로 들어오고, 혹은 멀리 山幕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름하는 시기를 잃어 장차 살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¹³⁾

조선에서는 위원에 건주위가 침입했을 당시부터 酋長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의 인민을 刷還하게 하거나,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國威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¹⁴⁾ 또한 병조에서는 위원이 침략당한 원인 중 하나는 평안도 高山里 이하 昌城 이상의 강 밖의 여진인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사냥을 핑계로 유둔하면서 조선의 허실을 살펴본 것에 있다고 여겼다.¹⁵⁾ 따라서 여진인들과 강 저쪽 수십 리에까지 와서 유둔하지 못하게 약속할 것을 정하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모두 賊으로 논하도록 하는 한편 절도사가 강을 건너가서 군사의 위엄을 보일 것이 계획되었다.¹⁶⁾ 여진인들과의 약속

10)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미; 병인; 권17, 2년 8월 정해.

11)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기묘.

12)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계미.

13)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계사.

14)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미.

15)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무신.

16) 위와 같음.

방법으로는 강 건너 수십 리 사이에 標를 세워서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⁷⁾

그러던 중 위원을 침입했던 여진인들은 건주좌위와 건주우위의 사이에 붙어살면서 차칭 峽州衛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보고가 들어와 정탐하고 날랜 군사로 습격할 것을 만포참사가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리고 건주위의 계속된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군사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부락의 강하고 약한 것과 멀고 가까운 것을 안 뒤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¹⁹⁾

한편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을 쇠환하자는 의논도 제기되었는데, 다음 <기사 1>을 보자.

<記事 1>

지금 마침 金主成可가 와서 童淸禮와 李山玉을 들여보내어 刷還하라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믿을 만한 向化 通事 1~2명을 선택하여 김주성가·朴古里 등의 무리와 함께 보내서 만포에 반은 잡아두고 반은 향화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서 주성가의 말대로 各衛에 두루 타이르고 형세를 살피게 하소서, 만약 야인들이 그 말을 들어서 도둑질을 그친다면 또한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만약 후일 부득이 擧兵한다면 마땅히 이들을 嚮道로 삼도록 하소서.²⁰⁾

야인 金主成可가 조선에게 童淸禮와 李山玉을 건주위에 보내 인민 쇠환을 처음으로 제안하였고,²¹⁾ 조선 조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향화 통사 1~2명을 파견하여 각위에 두루 타이르고 형세를 살피게 하는 한편, 후일 정벌하게 되었을 때 향도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에 向化部

17)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을축.

18)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병인.

19)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정묘.

20) 위와 같음.

21)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을해조에서도 金主成可가 동청례를 보내어 쇠환하자는 계획을 먼저 진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將 동청례와 兼司僕 이산옥을 파견하도록 하였는데, 동청례는 일가 친척이 건주위에 많이 살고, 이산옥은 信實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²²⁾ 그러나 동청례는 職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品秩이 높고, 이산옥은 품질은 낮지만 벼슬한 지가 오래되어 두 사람이 동행하면 서로 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나이 많은 이산옥을 보내지 말고 浪好時介와 高崇禮를 청례와 함께 들여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³⁾

동청례는 원래 알타리의 추장 童所老加茂의 아들이었는데, 동소로가무는 조선이 회령진을 설치할 때 자진하여 집을 철거하고 땅을 바치는 등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²⁴⁾ 세종은 동소로가무의 공헌을 중하게 여겨서 禮賓寺 判事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따라서 동청례는 외조부가 士族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²⁵⁾ 성종 때는 武科에 응시하기를 청하여 초시와 증시에 합격하였으며,²⁶⁾ 부령 靑巖里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이 도망하자 이를 쇠환하는데 노력하였고, 건주위에 대한 정책, 6진 지역에 대한 시무책 및 향화인 시책에 관한 많은 건의를 하였다.²⁷⁾ 동소로가무의 아들들은 대부분 동청례와 같이 조선에 향화하고 있었지만, 동청례의 형 童阿亡哈(童阿亡介)은 회령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건주위로 옮겨가서 大族과 혼인하여 그 종족이 번성한 상태였다.²⁸⁾ 결국 조선은 동청례와 같은 향화인을 이용하여 조선의 대여진정책을 구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향화인의 활용은 기미정책을 실시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조정에서는 병조로 하여금 건주삼위 추장들에게 통유하도록 하였는데, 그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22) 『연산군일기』 권16, 2년 7월 무진.

23)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갑신.

24) 『성종실록』 권273, 24년 1월 갑술; 『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신사.

25) 『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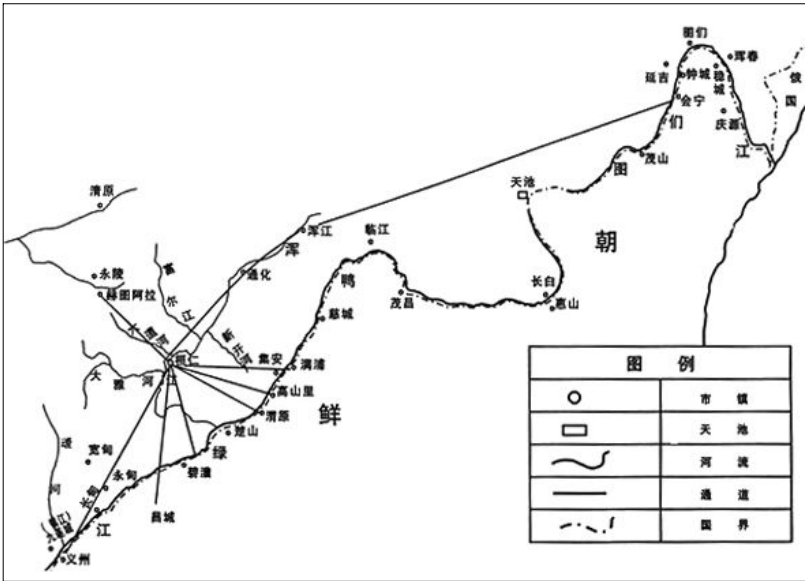
26) 『성종실록』 권34, 4년 9월 임인; 『연산군일기』 권38, 6년 7월 임술;

27) 『성종실록』 권148, 13년 11월 기유; 권178, 16년 윤4월 정미; 권289, 25년 4월 병술; 『연산군일기』 권12, 2년 2월 임자.

28) 『성종실록』 권96, 9년 9월 기미;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을해; 권23, 3년 5월 기사.

<記事 2>

... 근자에 너희들이 한갓 작은 이익만 탐내고 큰 화를 생각하지 않아 三水·理山 지방에 두 번 들어오고, 또 渭原에 들어와서 변방 백성을 침노하여 앞뒤로 죽이고 사로잡아 간 것이 매우 많았다. ... 전일에 폐단을 일으킨 것을 너는 비록 알지 못하겠지만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돌아갈 데가 있으니, 네가 능히 깨달아서 죄인을 찾아내 드러내어 형벌을 시행하고, 강탈해 간 것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부락을 단속하여 좀도둑질을 금하여, 두 지방으로 하여금 걱정이 없게 하면 이는 너희들의 복이다. ... 29)



(그림 2) 조선-건주여진 통행도30)

<기사 2>를 보면, 역시 여진인들의 계속된 침입이 있었고 위원 침입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책임은

29) 『연산군일기』 권17, 2년 8월 정해.

30) <그림 2>는 黄相栋 主编, 2006, 『桓仁建州女真志』桓仁建州女真志编委会, 42쪽, '建州女真通向朝鲜道路示意图'를 재수록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선과 건주위 사이의 통행로가 여러 방향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다.

조선 침입을 단속하지 못한 건주삼위 주장들에게 있으므로, 침입한 죄인을 찾아내서 벌을 주고, 조선에서 강탈한 인물과 재산을 돌려보내는 한편, 부락을 단속하여 더 이상 조선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 1>과 <기사 2>를 종합해보면,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 목적은 먼저 위원에 침입한 여진인들을 설득하여 잡아간 인구를 쇄환하게 하는 것이었고, 쇄환에 응하지 않아 실패하더라도 조선이 건주위를 정벌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각위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살펴 향도로 삼지는 것이었다.

결국 동청례는 三衛敬差官이란 이름으로 파견되었는데,³¹⁾ 경차관은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낸 임시 관원이었다.³²⁾ 동청례가 건주삼위로 출발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만포에서 압록강을 건너 2息쯤 되는 三岐峴에서 자고, 삼기현에서 1식 반쯤 되는 弓知岫 朴古伊라는 곳에 10월 1일에 당도하여 잠을 잔 것으로 보아 9월 30일 경에는 강을 건넜던 것으로 추정된다.³³⁾ 이후 동청례의 활동 사항을 <표 1>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1) 동청례의 1차 건주삼위 파견시 활동 사항(1496년, 연산군 2년)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9월 ?	만포 출발	야인들을 거느리고 압록강 도하
9월 ?	三岐峴	압록강에서 2息
10월 1일	弓知岫 朴古伊	삼기현에서 1식 반
2일	蒲州 강변	白礮巖 앞길을 경유

31) 『연산군일기』 권18, 2년 10월 정유.

32) 敬差官은 일반적으로 왕명에 따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對地方官이라 할 수 있다. 경차관 파견을 통한 조선의 대외활동 및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한문중, 1992, 『朝鮮前期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 15 및 Chong Da-ham(정다함), 2010, 『Making Chosŏn's Own Tributaries : Dynamics between the Ming-centered World Order and a Chosŏn-centered Regional Order in the East Asian Periphery(조선의 “조공국” 만들기-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사이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5-1 등이 주목된다. 특히 정다함은 明이 藩屏인 조선에 파견하는 欽差官을 차용하여, 藩籬·藩屏으로 규정된 여진족과 대마도에 조선에 대한 事大를 중용하려 파견한 것이 敬差官이었다고 하였다.

33) 『연산군일기』 권19, 2년 11월 갑진(이후 인용되는 동청례의 1차 건주삼위 파견시의 활동 상황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다).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3일	白礪巖 北長坪	포주 강 건너 3~4리, 李加乙豆 집 앞 뜰, 達罕 및 左衛의 甫堂介와 右衛의 馬阿堂介에게 교지 반포
4일	白礪巖 北長坪	우위 주장 童甫花土가 사람을 보내 조공 요청
5일	王夫里介 집 방문	渭原을 침입한 金山赤下의 마을 주장(자칭 岐州衛), 달한 동행, 왕부리개가 금산적하를 잡을 것을 약속함
6일	王夫里介 집	금산적하 도망, 그 아버 및 야인 6명이 찾아옴, 쇠환을 약속함
7일	王夫里介 집	눈이 많이 쌓임
8일	金弓堂介 집	갔던 길을 따라 回程, 달한과 작별, 달한의 甫堂介와 군사 만포까지 호송, 阿亡介도 호송 참여
9일	弓知洞口	
10일	弓知嶺을 넘어 영 아래	
11일	만포 도착	

동청례는 만포를 출발 → 三岐峴 → 弓知帖 朴古伊 → 蒲州 강변 → 白礪巖 北長坪 → 王夫里介 집 → 金弓堂介 집 → 弓知洞口 → 弓知嶺을 넘어 영 아래 → 만포로 돌아오는 경로로 건주위를 다녀왔는데, 총 12~13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동청례는 만포에서 야인들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10월 2일에는 포주 강변에 도착하였고, 강 건너 3~4리 정도 떨어진 白礪巖 北長坪에서 건주위(본위) 達罕(李于之加茂, 李完者頭)³⁴이 나흘째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인 3일 강을 건너가 李加乙豆 집 앞 뜰에서 달한과 건주좌위 및 우위에서 파견된 甫堂介, 馬阿堂介에게 교지를 반포하였다. 정확한 교지의 내용은 파악되진 않지만 <기사 2>의 내용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지 반포 후 달한은 야인들의 조선 침입을 금지하려 하지만 법령이 없고, 형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34) 達罕은 建州衛 李滿住의 손자로, 李豆伊(李豆里)의 아들이었으며, 건주위(본위)의 주장이었다(김순남, 2009, 『조선 成宗대의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표 1 이만주 사후의 건주삼위> 참고, 229쪽).

삼위의 추장이 마음을 같이하여 침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일에는 우위의 추장 童甫土土가 동청례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나이가 73세인데 죽기 전에 친히 조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5일에는 동청례가 달한과 함께 위원을 침입하였던 金山赤下의 마을 추장 王夫里介의 집을 방문하였다. 달한이 왕부리개에게 금산적하를 잡아와야 한다고 하자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6일) 금산적하는 달아나 숨고, 그 아버지가 야인 6명을 거느리고 왔다. 달한이 이들에게 쇠환을 강요하여, 결국 울적합에게 팔려간 사람들을 쇠환하기로 하고 몇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다음날(7일) 눈이 많이 쌓여 길을 떠난 자들이 제때에 돌아오는 것도, 길이 막히면 조선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동청례는 회정을 하면서 달한과 작별하였다. 이때 달한은 삼위의 裨將·里將 등의 성명을 써주면서, 이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면 대조하여 문죄하고 잡아서 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달한은 甫堂介 등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까지 호송하게 하였고, 동청례의 형 동아망개 역시 호송에 참여하였다. 동청례는 건주위로 갔던 길을 돌아오면서 회정하였는데, 金弓堂介의 집과 弓知洞口, 그리고 弓知嶺을 넘어 영 아래에서 각각 하루씩 묵었고(8~10일), 11일에는 만포로 돌아왔다.

동청례는 달한이 사는 마을이 왕부리개의 집에서 북쪽으로 2息, 좌위는 서쪽으로 2息, 우위는 8~9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파악하였는데, 각위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을 살피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회정할 때에는 高山里鎮으로 가는 지름길을 야인 童可多下에게 물어 야인들이 고산리진에서 3식쬼 되는 거리에 險處를 설치한 사실을 알아내었고, 후일 동청례가 다시 건주위로 온다면 이 길에서 맞이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또한 동보당개 등은 포로된 사람들을 추후에 쇠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동청례의 형 동아망개는 아버지 동소로가무가 회령의 번리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만포 건너편 皇城坪에 거주하면서 조선의 藩籬가 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³⁵⁾

35) 조선에서는 동아망개의 요청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후대에 여진인들이 증가하면 방어상의 폐단 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쪽 변경은 上國(중국)에 가까워서 마음대로 너희들을 가까운 변경에 옮길 수 없다'고 답하게 하여 동아망개의 요

그러나 동청례의 건주삼위에 대한 첫 번째 파견은 건주위(본위)에 국한되었고, 실제적인 피로인들의 쇠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쇠환할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조선은 달한이 조선의 사신과 명을 받고 쇠환을 독려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쇠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위엄과 명령이 아랫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³⁶⁾

3. 童淸禮의 2차 建州三衛 파견

조선은 건주위에서 돌아온 동청례에게 지도를 작성하고 서로 모일 절목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청례가 여진인들과 다시 만나 포로를 쇠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⁷⁾ 다시 회견할 시기와 장소는 다음해 봄 만포에서였지만,³⁸⁾ 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1497년(연산군 3) 4월 建州左右衛의 서계가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포에서 다시 모이기로 기약하여 사람을 보내 동청례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으므로 4월간에 만포에서 만나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³⁹⁾ 이에 병조에서는 삼위 추장들이 도적질을 금지한 약속처럼 근간에 변방 정보가 좀 멎었으니, 그들의 청대로 동청례를 다시 보내어 조선의 뜻을 통하고 삼위의 정황을 탐지하도록 하여 윤희를 받았다.⁴⁰⁾

그렇지만 건주좌우위의 서계가 도착한 전후로 동청례의 재파견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재파견을 주장한 평안도관찰사李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산군일기』 권19, 2년 11월 을사).

36) 『연산군일기』 권19, 2년 11월 병오.6

37) 『연산군일기』 권18, 2년 10월 정유.

38)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

39)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서계를 보낸 것은 ‘建州左右衛’로 쓰여 있지만,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경신조에는 ‘左衛’로만 쓰여 있다).

40)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정유.

克均 및 兵曹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동청례가 건주위에만 방문하여 물품을 하사하고, 좌·우위를 방문하지 못해 주장에게 물품을 하사하지 못한 점은 嫌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동청례가 급박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건주삼위의 도로 사정과 거처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⁴¹⁾ 따라서 동청례를 다시 삼위로 보내어 균일하게 물품을 하사하는 동시에 지략있고 날랜 군사를 뽑아 伴奴라는 명색으로 따라가게 하여 도로와 요해지 및 거주처를 자세히 알아보아 후일의 토벌에 대비하도록 주장하였다.⁴²⁾ 또한 건주위 달한이 순종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撫綏] 하면 침요의 환란을 그치게 할 수 있고, 방수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재파견을 반대했던 입장들은 왕래가 번거로우면 국위가 손상되고, 먼저 자주 사절을 보내어 약함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⁴⁴⁾ 또한 야인들이 동청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약속이며, 잡아간 인구를 한 명도 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청례를 보내는 것은 使命의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였다.⁴⁵⁾ 그리고 농사철에 동청례가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邊鎮에 머물면 양식만을 허비하는 것이고, 동청례에게 자주 왕래하게 한다면 야인을 대우하는 것이 동청례에의 입 놀리기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에 동청례의 재파견을 반대하면서, 꼭 보내야 한다면 만포에서 서로 보는 것을 허락하여 귀순하는 마음을 위로하도록 주장하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동청례의 재파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듭되어 2차 파견이 결정되었다가 중지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건주삼위의 도독이 모두 서계를 보내어 동청례를 만나보도록 청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되었다.⁴⁸⁾ 건주삼위의

41)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42)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권23, 3년 5월 경신.

43) 『연산군일기』 권20, 2년 12월 경진.

44) 위와 같음.

45) 『연산군일기』 권22, 3년 4월 경자.

46) 위와 같음.

47) 위와 같음.

서계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야인들은 ‘전일 동청례가 갔을 때에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일 다시 오면 평탄한 길로 맞이하고,窟穴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다.⁴⁹⁾

병조에서는 삼위의 도독들이 보낸 서계에 대해 첫째, 동청례가 다시 온다는 말을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어떤 모계가 있는지 그 정상을 알려고 하는 시도, 둘째, 조선의 군사가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동청례를 통해 화호를 이루려는 시도, 셋째, 동청례의 파견에 따른 하사 물품과 은상을 얻으려는 시도로 파악하였다.⁵⁰⁾ 그리고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야인이 침범하는데도 군사로 죄를 성토하지도 않고, 귀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려들이지 않으면서 오랑캐의 도적질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삼위의 요청이 돈독하므로 재차 동청례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⁵¹⁾ 결국 연산군은 대신들과 의논 끝에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을 결정하고, 병조에서 이극균과 함께 동청례가 가지고 갈 事目을 의논하게 하였다.⁵²⁾

병조가 이극균과 함께 만든 사목에서는 동청례를 宣慰官이라고 하였지만, 2차 파견시의 정식 명칭은 三衛宣諭官이었다.⁵³⁾ 사목에는 무신 4인을 함께 들여보내고, 통역으로 귀화인 高崇禮 및 京通事 1인, 하사물⁵⁴⁾을 가지고 가는 사람 2인, 호각 및 통소 부는 사람 각 1인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파견되는 사람은 동청례까지 하면 총 11명이다. 그리고 각각 三衛와 岐州衛 및 溫下衛에 귀순의 징험을 보일 것과 피로인을 쇠환할 것, 휘하들을 단속하여 침략하지 말 것을 전하도록 하였다.⁵⁵⁾ 그리고 예조에서는 건

48) 『연산군일기』 권22, 3년 5월 경신.

49)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병인.

50) 『연산군일기』 권22, 3년 5월 경신.

51) 위와 같음.

52)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병인; 기사.

53)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기사; 권28, 3년 10월 을해.

54) 조선에서 야인들에게 준 하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동청례가 가지고 갈 부채 130자루를 內廂庫에 저장해 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가 하사물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연산군일기』 권24, 3년 6월 임오).

주삼위에 曉諭할 글을 지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記事 3>

… 얼마 전부터 奸細한 무리들이 막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주 邊境을 침범하므로, 邊將들이 군사를 출동하여 죄를 성토하기를 청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지난해 겨울에 童淸禮를 파견하여 너희들의 정상을 살펴보게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각기 부하를 보내어 경계 위에 나와 맞이하고 조심스럽게 朝命을 받들므로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어 옷가지를 주게 하신 것이니 각기 영수하여 가고, 조정의 은혜로이 돌보아 주는 뜻을 체득하여 휘하들을 단속해서 더욱 순종하는 성의를 보이도록 하라. 만일 혹 시라도 고치지 않고 다시 전일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면 죄를 따지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각기 너희들의 마음을 경각시켜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라.⁵⁶⁾

건주삼위에 효유한 글의 내용은, 위원 및 변경에 대한 침입이 있어서, 지난해 겨울 동청례를 파견하여 정상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여진인들이 朝命을 잘 받들었으므로 다시 동청례를 파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휘하들을 잘 단속하여 순종하고 침입을 하지 말 것이며, 침입이 있을 시에는 군사를 보내 정토를 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서계에 대해서는 예전에 야인에게 답한 서계가 전전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관계되는 말들은 일체 금기하였으므로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가부를 묻고 합당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⁵⁷⁾ 즉 건주삼위가 있던 곳은 중국 명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조선에서 보낸 서계가 명에 흘러 들어간 일도

55) 『연산군일기』 권23, 3년 5월 기사. 동청례가 건주삼위에 들어갈 사목까지 의논되었지만, 동청례의 재파견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주요 반대 의견은, 여진인들이 위원에서 사로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헛되게 갔다가 헛되게 돌아오면 국가의 위신만 손상될 것, 이적과 상통하면 반드시 걱정이 생기며 물품을 상국에 조공하듯 많이 주어 낭비되고 끝없는 폐단이 남쪽의 倭와 같이 생길 것, 동청례를 다시 보내도 변방의 근심이 종식되지 않을 것 등이었다(『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갑진; 병오; 경술; 권26 3년 8월 경오).

56) 『연산군일기』 권24, 3년 6월 신묘.

57)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계축.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동청례의 파견과 조선의 서계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동청례는 7월 중에 이미 서울을 떠났고,⁵⁸⁾ 8월에는 만포에서 영접 나온 건주삼위의 여진인들을 만났다.⁵⁹⁾ 이미 7월 초순에 건주삼위의 여진인 70명이 만포에 와서 동청례를 기다리다가 동청례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것을 전하러 돌아간 상황이었다. 동청례는 남아있던 네 사람에게 작년에 인도하였던 길로 영접하면 가지 않을 것이고, 전자에 약속했던 평탄한 滿車의 길로 영접하도록 하였다. 이후 동청례의 활동 사항을 <표 2>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2)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시 활동 사항(1497년, 연산군 3년)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8월 23일	만포	右衛酋長 甫下土가 三衛 野人 50명을 거느리고 와서 영접함
24일	만포	관찰사가 보하토 등을 宣慰하고 물품 차등 수여
25일	高山里	배를 타고 고산리에서 숙박 보하토 등은 강을 건너 皇城坪에서 숙박
26일	압록강 도하 滿車 길 경유 于羅山城 理山 飛羅	滿거의 길 경유, 10리 지나 우라산성의 야인 1명이 영접 50리 떨어진 이산 비라에서 野宿
27일	三岐 鬱地	우라산성 야인 11명에게 각각 면포 疋과 종이 疋 수여 10리 지나 삼기 도착, 시냇물 20개 지나 40여리 가서 嶺 도착(울지), 10여 리를 더 가서 산기슭에 노숙
28일	滿車坪	30리 지나 風雪이 갑자기 몰아쳐 유숙
29일	陣高介 蒲州江	10여 리 지나 비옥한 평야 嶺고려가 두려워 못 온다 함 4~5리 지나 진고개 도착, 金山赤下가 設險한 시설 목도 7~8리 지나 管老 등이 새로 이사한 인가 8집 봄 15리쯤 가서 금산적하의 도당 4집 봄 1~2리 지나 포주강 당도, 금산적하 등 30여 명이 고려 사신을 데리고 온 여진인들을 위협, 동청례를 가로막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함, 부득이 江上에서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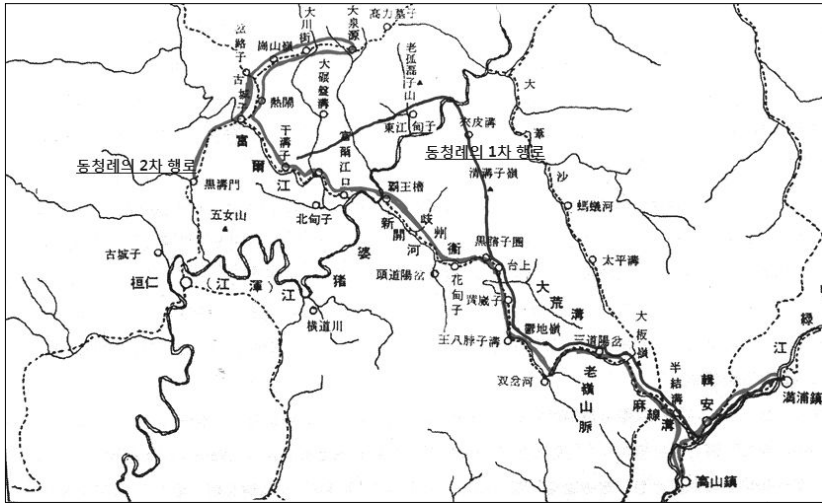
58)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경술.

59) 『연산군일기』 권28, 3년 10월 을해(이후 인용되는 동청례의 2차 건주삼위 파견시의 활동 상황은 동청례가 복명한 이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다).

일 자	장 소	활동 사항 및 기타 사항
9월 1일	金山赤下 집	금산적하가 계속 가로막음 동청례의 형 아망합이 부하 18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음 (동청례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요청) 금산적하 등 7인이 강을 건너 와 대면하자 동청례가 힐 책함 금산적하가 배를 모아 건너가기를 경근하게 청함 금산적하 집에 당도(금산적하 및 그 아버 등이 심복함) 5리쯤 지나 유숙호각을 불어 방비 및 피로인들에게 알림
2일	阿羅加舍里	20리쯤 가서 王夫里哈 거주지 통과, 30리쯤 가서 아라가사리 당도, 건주위 도독 羅의 아 들 羅吾將(동청례의 6촌)이 2~3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호 각을 불며 영접하고 유숙, 나오장이 조선인 1인 쇄환 趙三波의 아들 8인이 귀순 요청
3일	達罕 집	30리 지나 나오장 거주지 통과(10여 호) 20리 지나 달한 거주지 도착(50여 호) 10리 못가서 달한의 子 甫羅多 및 좌위추장 土剌가 영접 함 5리쯤 가서 달한이 소리를 불며 영접, 집 앞으로 안내 서계를 놓고 1백여 인을 사배하게 하고 宜醞과 물품 하 사함 事目에 대한 뜻을 말함, 술자리를 마련하고 잔치를 벌임
4일	達罕 집	달한이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 달한이 조선 변경 침 입 금지를 약속하고 도로로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함
5일	羅吾將 집	도독 나오장의 집 당도(달한 거주지에서 20여 리),나오 장의 집에서 유숙함 나오장이 5리 밖에서 영접,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
6일	左衛	나오장의 집에서 60여 리, 추장 토로가 5리 밖에서 영접 서계에 절하고 사물을 받고, 침입 금지를 약속함
7일	左衛	추장 보하토에게 사물을 증여
8일	阿羅加舍其里	회정, 보하토와 달한의 子 多之哈, 동청례의 형 동아망합 등이 삼위의 諸種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송함 이사가사기리에서 유숙
9일	蒲州 강변	王剌老가 말과 소로 양가 여자 延壽를 사가지고 음
10일	鬱地 河口	금산적하가 부모와 함께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길 가에서 접대하고 사로잡아간 위원의 여자를 돌려줌
11일	鬱地 산기슭	온하위 40여 명이 술을 가지고 오고 소 마리 기증해 음
12일	압록강 도하	호송인 2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 도하
13일	만포	만포침사 이운종과 호송해 준 아인을 위해 잔치를 벌임

동청례는 2차 건주위 파견시, 만포를 출발 → 高山里 → 滿車 길 → 于羅山城 → 理山 飛羅 → 三岐 → 鬱地 → 滿車坪 → 陣高介 → 蒲州江 → 金山赤下 집 → 阿羅加舍里 → 達罕 집 → 羅吾將 집 → 左衛 → 阿羅加舍其里 → 蒲州 강변 → 鬱地 洞口 → 鬱地 산기슭 → 압록강 도하 → 만포로 돌아오는 경로로 건주위를 다녀왔는데, 총 20여 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1차 파견 때보다도 긴 여정이었으나, 만거 길을 경유하면서 건주위로 가는 길을 단축할 수 있었다.

8월 23일 만포에서 右衛酋長 甫下土가 三衛 野人 50명을 거느리고 와서 동청례를 영접하였고, 25일에는 배를 타고 만포를 떠나 高山里에서 잠을 잤는데, 보하토 등은 압록강을 건너 皇城坪에서 유숙하였다. 26일에는 동청례도 압록강을 건너 보하토 등과 함께 전에 약속했던 평탄한 滿車 길을 경유하여 烏里山성의 야인들의 영접을 받고 理山 飛羅(澗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부근에서 야숙을 하였다. 27일, 三岐로 이동하여 시냇물을 20여 곳이나 지나 鬱地라는 재(嶺)에 도착하여 근처 산기슭에서 노숙하였는데, 烏里山성의 야인들이 고려와의 원한을 풀고 上京하여 肅拜드릴 것을 요청하였다. 28일 만거평을 지나, 29일에는 陣高介에서 금산적하가 설험한 방어시설물을 목도하였는데 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놓아 판자를 세워서 방패와 같이 만든 것이었다. 설험한 장소는 ‘고려가 쳐들어올 적에 援軍을 머물러 둔 곳’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管老 및 金山赤下의 관하들의 집을 지나서 蒲州江에 당도하였다. 포주강에서는 금산적하 등 30여 명의 여진인들이 무장을 한 채 동청례를 데리고 온 여진인들을 위협하며, 동청례를 가로막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여 부득이 江上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이들이 동청례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은 것은 위원 침입을 주도한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이전에도 조선 사신이 왔다가 지형 및 도로 등을 파악하고 얼마 있지 않아 조선의 정벌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림 3〉 동청례의 1·2차 행로도⁶⁰⁾

9월 1일에는 동청례의 형 아망합이 강을 건너 와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던 중 금산적하가 건너와서 동청례와 대면하게 되었다. 동청례는 금산적하의 조선 침입 및 피로인 쇄환 약속을 어긴 것을 힐책하였고, 금산적하가 건주삼위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허락하였다. 강을 건너 금산적하의 집에 당도하여 술을 대접 받으면서 금산적하와 그 아버지의 위원 침입을 꾸짖고 심복을 받았으며, 5리 쯤 지나 유숙하다가 호각을 불어 방비하고 피로인들에게 조선 사신이 왔음을 알렸다. 2일에는 王夫里哈 거주지를 통과하여 阿羅加舍里에 당도하자 건주위 도독 羅下의 아들 羅吾將(동청례의 6촌)이 2~3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호각을 불며 영접하였다. 함께 유숙하면서 동청례가 쇄환의 일을 이야기하자, 나오장이 즉시 자신의 부하가 사로잡은 조선인 1명을 쇄환하였다. 또 趙三波의 아들 8인이 와서 조선에 귀순을 요

60)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660쪽, ‘童淸禮行程參考圖’를 재식상함(같은 지도가 河内良弘, 1976,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1, 78쪽에도 있다). 河内良弘은 동청례의 1·2차 파견 행로를 미정하였는데, 그의 견해에 따라 지도에 ‘線’을 표시해 보았다.

청하기도 하였다.

3일에는 나오장이 사는 곳을 통과하여 달한이 사는 곳에 이르렀는데, 달한의 아들 甫羅多 및 좌위추장 土老가 10리 밖에서 영접하고, 달한도 5리 밖에서 소리를 불며 영접하면서 집 앞으로 안내하였다. 달한은 전립을 쓰고 녹사와 흥배를 입었으며, 동청례가 서계를 긴 상에 놓고 달한 및 群下 1백여 인을 四拜하게 하고 宣醞과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事目에 대한 뜻을 말하고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잔치를 벌였다. 달한은 동청례에게 닭구이와 소주를 대접하였으며, 잔치에서는 琵琶를 타고 奚琴과 같은 屎屎音を 당기며 拍板을 치곤하였다. 또한 침방으로 청하여 풍악을 울리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술을 권하게 하기도 하였다.

4일에는 달한 등이 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동청례가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요청하자, 달한은 ‘큰 무리는 영원히 근절될 것이지만 소소한 무리들이 도적질 하는 것은 보증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달한은 또한 조선이 침입을 받는 경우에는 大軍을 발동하지 말고 裨將을 보내 알리면 침입자를 수색하여 조선의 관군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도로를 다 알게 되면 침입하려는 여진인들이 보복이 두려워 굴복할 것이므로 동청례가 돌아가면서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하였다. 동청례는 5일에 나오장의 집에서 묵고, 6일에는 左衛에 당도하여 추장 土老를 만났다. 토로는 紗帽를 쓰고 대홍색 袞龍 團領을 입었는데, 5리 밖에서 호각을 불며 영접하였고, 역시 서계에 절하고 사물을 받았으며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술자리를 벌였는데, 술자리가 파한 다음에 토로의 아내가 옷을 잘 단정하고 여종 5~7명을 거느리며 사람을 물리친 이후에 동청례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7일에는 좌위에 머무르면서 우위 추장 보하토에게 우위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하토는 火刺溫 兀狹哈과 틈이 벌어져 자신도 다른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물을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동청례는 부득이 좌위에서 우위 추장 보하토에게 사물을 증여하였고, 보하토는 자신의 거

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못하고 소 2마리를 잡아 보내었다. 이때 보하토는 건주삼위가 만포 이외에도 각각 가까운 고을에 告變할 것과 朝貢하는 것도 전례에 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청례는 이렇게 해서 건주위(본위)·좌위·우위 추장들을 모두 직접 대면하였다. 또한 각각에게 서계를 반포하고 사물을 증여하였으며, 침입 금지 약속을 받고 다음날인 8일 회정을 하였다. 회정시에는 보하토와 달한의 아들 多之哈, 동청례의 형 동아망합 등이 삼위의 諸種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송하였다. 회정하던 중 9일에는 王斜老가 말과 소로 自作地에 사로 잡혀 온 양가 여자 延壽를 사가지고 왔고, 10일에는 금산적하가 부모와 함께 와서 사로잡아간 위원의 여자를 돌려주었으며, 11일에는 온하위 40여 명이 소 1마리를 기증해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12일에는 압록강을 건너 만포로 돌아와서 다음날(13일) 호송해 준 여진인들에게 잔치를 벌여 주었다.

결국 동청례의 건주삼위 2차 파견은 지역적으로만 한정해보면 건주위와 건주좌위까지 이루어졌지만, 삼위 추장 모두에게 조선의 서계와 사물을 전해 주면서 그들의 조선 침입 禁約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에서 피로된 사람들의 송환을 이끌어내었으며, 건주위의 도로와 지형을 소상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청례의 파견과 활동은 건주삼위 추장의 내조 요청(61)과 연관되면서 이후 『西北諸蕃記』와 「西北地圖」 찬술의 바탕이 되었고, 『西國諸蕃記』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⁶²⁾ 『海東諸國記』는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온 후 만들어졌는데, 『西

61) 『연산군일기』 권31, 4년 10월 무자(건주삼위의 추장 達罕, 甫花土, 土老 등이 내조 요청을 하자, 조선에서는 이들이 一品 都督이기 때문에 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었다. 건주삼위 추장들의 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건주삼위의 추장이 내조하게 되면 평안도의 監司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고, 宣慰使를 보내서 觀察使는 北壁에 앉고 추장을 동벽에 앉게 하였는데, 추장이 품계가 조선의 관찰사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배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접대의 節目을 마련하여, 江界府에서 세 차례 잔치를 베풀고, 도둑 및 수행자들에게 수여할 물품과 장소를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62) 『西北諸蕃記』와 「西北地圖」가 撰述된 것은 1501년(연산군 7)으로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 후 4년이 지난 뒤에 좌의정 威俊과 우의정 李克均에 의해 撰述되었다(『연산군일기』 권40, 7년 윤7월 갑신). 『西國諸蕃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西北諸蕃記』를 바탕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西國諸蕃記』에 대한 기록은 『연산군일기』 권52, 10년 3

『國諸蕃記』 역시 동청례의 건주삼위 파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⁶³⁾

그렇다면 동청례의 1·2차 파견으로 조선인 포로의 쇄환과 압록강유역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은 멈추었을까? 동청례의 파견 직후에는 압록강유역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은 잠시 멈추었지만, 여진인들의 침입은 다시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여진인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명과 조선과의 교역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지를 침입하고 있었다. 게다가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농경화 진행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명과 조선의 사람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진인들의 요동에 대한 침입은 조선의 변경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⁶⁴⁾

실제로 동청례의 2차 파견 이후에 건주위의 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해 1498년(연산군 4)부터 평안도 변경에 대한 여진인들의 침입 정황이 보고되고 있었다.⁶⁵⁾ 동청례의 파견 2년여 정도가 지난 1499년(연산군 5) 야인 20여 명이 三水郡을 침범하여 거민 7명을 살해하고, 남녀 33인과 牛馬 10여 마리를 노략하여 갔으며, 碧潼鎭도 침입을 받게 되었다.⁶⁶⁾ 마침내 여진인 50여 명이 삼수군 甘坡里를 침범하여 남녀 4인과 소 2마리를 노략하고, 다시 삼수 경내의 변민 7인을 사로잡아가면서 우의정 成俊을 지휘관으로 하는 여진 정벌을 계획하게 되었다.⁶⁷⁾ 따라서 동청례⁶⁸⁾의 건주삼위 파견에 대

월 신미조에 보인다.

- 63) 『海東諸國記』는 1443년(세종 25)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가 1471년(성종 2)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일본의 정치·외교관계·사회·풍속·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에 日本 및 琉球 등의 使臣이 왔을 때의 접대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승지 李懿孫이 ‘倭人에 대해서는 해동제국기가 있으므로 그 世系를 상고할 수 있지만, 野人에 있어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西國諸蕃記』를 인용할 것을 청한 것’으로 보아 『서국제번기』 역시 『해동제국기』처럼 여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신미).
- 64) 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郡司의 危機』, 『만주연구』 3, 참고.
- 65) 『연산군일기』 권29, 4년 5월 기해.
- 66) 『연산군일기』 권33, 5년 4월 임진; 기유.
- 67) 『연산군일기』 권33, 5년 5월 무진. 成俊은 西征軍 2만 명의 동원을 요청하였고 특수 총동군 100명에게 화포훈련을 시작하였으나, 홍문관과 사헌부의 반대가 계속되어 조정에서 서정 가부에 대한 논의 계속되었으며, 결국 1499년(연산군 6) 정월에 西征 논의를 중단하

해서도 ‘동청례가 갔다가 돌아온 후 여진인들의 도적질이 전보다 몇 배가 되었었는데, 여진인들이 이익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자 도리어 화만 나게 된 것’,⁶⁹⁾ ‘동청례를 보내어 추장을 위무하고 회유하였는데도 변방의 우환은 더욱 심해진 것’⁷⁰⁾ 등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진의 침입은 동청례 파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여진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따른 것이었다. 연산군대 동청례의 파견은 조선 초기부터 이어진 여진에 대한 기미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써 실시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燕山君대 이루어진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은 압록강유역의 渭原이 침입을 받은 것을 계기로 포로된 사람들을 쇄환시키고, 교섭을 통해 여진인들의 침입을 금지시키며, 향후 정벌을 대비하여 建州三衛 지역에 대한 도로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동청례의 파견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청례의 1차 파견은 1496년(연산군 2)에 실시되었는데, 약 12~13일 정도가 걸리는 여정이었다. 동청례는 ‘三衛敬差官’이란 이름으로 건주위(본위)를 직접 방문하여 추장 達罕과 좌·우위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위원 침입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쇄환하고, 침입을 금지하라는 조선의 教旨를 반포하였다. 그러나 건주위만을 방문하였을 뿐 좌위와 우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

였다(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58~60쪽).

68) 동청례는 종종 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었다가, ‘禍心을 품고 도당을 맺어 반란을 선동하고, 인심을 동요시켜 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능지처사 당하였다(『중종실록』 권7, 3년 12월 병인). 여진인들은 동청례의 죽음에 대해 보복을 성언하기도 하고, 20여 년이 지났지만 愾怨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중종실록』 권12, 5년 8월 갑오; 권 64, 23년 12월 병술).

69) 『연산군일기』 권36, 6년 1월 갑자.

70) 위와 같음.

였으며, 잡아간 사람들의 쇠환을 약속받았지만 쇠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다만 조선에 대한 침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눈이 많이 쌓이는 관계로 급히 돌아오면서, 다음해 봄에 滿浦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만포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건주삼위의 추장들은 書契를 보내 동청례의 파견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는 동청례의 건주삼위 재파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동청례의 2차 파견이 결정되어 1497년(연산군 3)에 ‘三衛宣諭官’이란 이름으로 약 20여 일 정도 건주삼위를 방문하였다. 2차 파견시에는 동청례를 영접하러 온 여진인들을 따라 1차 파견 회정 때 약속받았던 평탄한 지름길을 통해 건주위(본위)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여진인들이 설치한 방어시설을 볼 수 있었고, 위원에 침입한 金山赤下의 위협과 방해도 있었다. 그러나 건주위(본위) 達罕과 좌위 土老, 우위 甫化土(甫花土, 南華土) 등 건주삼위 추장들을 직접 대면하고, 각각에게 조선의 서계를 반포할 수 있었다. 삼위 추장들은 宣醢 및 물품을 받고 잔치를 벌여 동청례를 환영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대한 침입 금지를 약속하였고, 특히 달한은 동청례가 회정할 때 도로를 소상히 알고 가도록 하였다. 소정의 목적을 이룬 동청례는 포로가 되었던 조선인 3명을 돌려받고, 2백여 명의 여진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돌아왔다.

조선전기 여진관계사 연구 중 건주위와의 교섭 관계는 조선의 세조 이후부터 선조 직전까지(1468~1567) 약 1백년 간 공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과 건주삼위의 관계를 고찰할 사료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세조대 건주삼위에 대한 招撫와 이에 대한 明의 간섭으로, 이후에도 양자 간의 관계가 중단된 것처럼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조대 이후에도 조선과 건주위와의 교섭은 계속 지속되었다. 성종대 세조대처럼 平安道の 교통로를 개방하여 건주삼위의 통교를 받아들인 사실이나, 연산군대 동청례를 건주삼위에 파견한 사실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연산군대 동청례의 파견은 조선의 여진에 대한 羈縻政策을 계승하면서 그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미정책은 여진이 後金으로 통합되는 과정까지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시기에 대한 조선과 건주삼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清朝 前史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朝鮮 成宗實錄』, 『朝鮮 燕山君日記』, 『朝鮮 中宗實錄』.

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김순남, 2009, 「조선 成宗代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68.

_____, 2009,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만주연구』 3.

_____,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유재춘, 2011, 「중·근세 朝·中間 국경완충지대 형성과 경계인식 -14~15세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한문중, 1992, 「朝鮮前期의 對馬島敬差官」 『진북사학』 15.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_____, 2007,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보』 40.

Chong Da-ham(정다함), 2010, 「Making Chosŏn's Own Tributaries : Dynamics between the Ming-centered World Order and a Chosŏn-centered Regional Order in the East Asian Periphery(조선의 “조공국” 만들기-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중심의 동북아 질서의 사이에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5-1.

姜龙范·刘子敏, 1999, 『明代中朝关系史』,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孙进己 外 3人, 1987, 『女眞史』, 吉林文史出版社.

黄相栋 主編, 2006, 『桓仁建州女眞志』, 桓仁建州女眞志編委會.

河内良弘, 1976, 「燕山君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1.

_____,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patch of Geonjusamui of Dongcheongry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 in Joseon

Han, Seong-Joo

The dispatch of Geonjusamwi(建州三衛) of Dongcheongrye(童淸禮)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燕山君) was carried out to return the captives, to prohibit the invasion of the Jurchen by diplomatic communication, and to figure out roads and topographies in Geonjusamwi area for the future conquest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invasion of Wiwon(渭原) in the Amrok River basin.

The first dispatch of Dongcheongrye was taken in 1496(2nd year of King Yeonsan's reign), which took 12~13 days. Dongcheongrye under the title of 'Samuigyeongchagwan(三衛敬差官)' visited Geonjuwi(建州衛, Bonwi[本衛]) in person and distributed the edict of Joseon to return the captives during the invasion of Wiwon and to prevent invasion. However, he visited only Geonjuwi and failed to reach Jawi(左衛) and Wuwi(右衛). He got a promise of returning the captives, but no actual returning was made. He was promised not to make invasion to Joseon. And he hurriedly returned due to heavy snow promising to meet at Manpo(滿浦) in the next spring. When the meeting at Manpo was not kept, chiefs of Geonjusamwi requested the dispatch of Dongcheongrye by sending a letter, and there was another discuss to the re-dispatch of Dongcheongrye.

At last, the 2nd dispatch was decided in 1497(3rd year of King Yeonsan's reign) under the title of 'Samwiseonyugwan(三衛宣諭官)' for 20 days in Gyeonjusamwi. During the 2nd dispatch, they arrived at Geonjuwi(Bonwi) through the flat short-cut along with the Jurchen which was promised during the meeting in the first dispatch. They could see defense facilities installed by the Jurchen and there were also threats and intervention by Geunsanjeokha(金山

赤下) who invaded into Wiwon. However, they could encounter chiefs of Geonjusamwi including Geonjuwi(Bonwi) Dalhan(達罕), Jwawi Toro(土老), Wuwi Bohwato(甫化土) and distributed the edict of Joseon respectively. The Geonjusamwi chiefs welcomed Dongcheongrye by receiving gifts and goods and by hosting a party. They promised not to invade Joseon, and especially Dalhan introduced Dongcheongrye detailed road information. After achieving intended objectives, Dongcheongrye returned with 3 Joseon captives by the guard of 200 Jurchen people.

It was regarde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was halted due to the Chomu(招撫) on Geonjusamwi during the King Sejo(世祖) and the intervention of Ming of it, but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Joseon and Geonjusamwi continued thereafter. The facts that King Seongjong(成宗) accepted diplomatic relation with Geonjusamwi by opening the traffic roads of Pyeongando(平安道) and King Yeonsan dispatched Dongcheongrye demonstrated the continued relation. In particular, the dispatch of Dongcheongrye shows part of Gimi(羈縻, carrot and stick) policy toward the Jurchen, and such policy continued until the Jurchen was integrated by the later Jin dynasty.